

# 어린 이 사랑방

92. 12



아빠가 나가고 있는데 아침이 됐어요. 꽃이 활짝 피었어요.

김 지혜 ( 여아 6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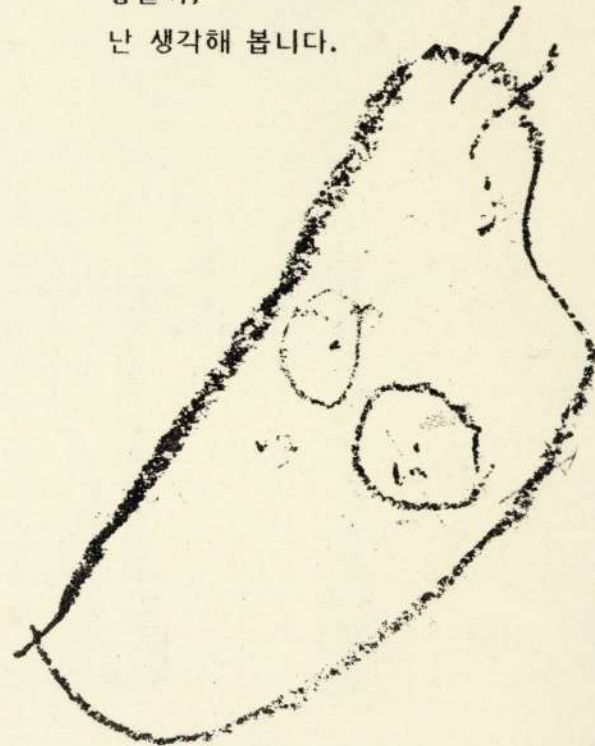
아내가 필요한 엄마에게

김 승 희

모두들 잠든 밤입니다.  
엄마는 빨래와 설거이를 마치고  
조용히 우리들 옷을 개키고 계십니다  
창 밖 빨랫줄엔  
고무장갑 두 켤레가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엌용  
하나는 세탁용  
고무장갑 두 켤레 속에  
엄마의 일생이 등뼈가 꺾인 새우처럼  
고부라져 있습니다

아빠는 말하지요  
가정은 남자에게 최후의 휴식처  
집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지상의 낙원  
엄마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어디선가 데려온 노예인가봐요  
아름다운 타지마할을 짓기 위해선  
일꾼들이  
좀 죽더라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 ?

공장에서 두 다리가 툭툭부어 돌아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겐 남편보다도  
아버지가 필요한거야  
엄마에게도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생각해 봅니다.



고구마 ( 김 태훈 남아 4세 )

## 글 실는 순서

♥ 글을 여는 시

♥ 글 쓰는 순서

♥ 하루 일과

- 엄마의 하루 . . . . . 이 덕 순 ▷ 2
- 아빠의 하루 . . . . . 고 충 길 ▷ 3
- 자원활동가의 하루 . . 이 명 란 ▷ 4
- 교사의 하루 . . . . . 태 재 원 ▷ 6

## ♥ 시사특집

1. 올바른 택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 8
2. 엄마들에게 물어보았어요. ▷ 11
  -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 이번 대통령선거 어떻게 할까요?
3. 내가 바라는 대통령 ▷ 14
4. 공정선거 어떻게 할까요? ▷ 15

♥ 사랑방 소개

- 사랑방 어떻게 생겼어요? ▷ 16
- 사랑방의 생활과 규칙 ▷ 18
- 김지은(꼭지)네 이야기 ▷ 20
- 어린이 사랑방이  
어떻게 살아왔는고 하니 ..... ▷ 22
- 졸업생 엄마의 글 ..... 김 명 선 ▷ 24  
..... 권 외 순 ▷ 26

♥ 소식란

- 자모회 소식 ▷ 28
  - 교사 / 자원활동가 소식 ▷ 29
  - 행사 소식 ▷ 30
  - 엄마의 글솜씨 ▷ 32
  - 신간서적 안내. ▷ 34
- 볼만한 비디오

♥ 후원 감사합니다 ▷ 36

♥ 살림살이 ▷ 38

♥ 나도 하고 싶어요 ▷ 40

♥ 편집후기 ▶ 42

# 엄마! 나... 나... 한벌이랑 결혼할래. 히히힝....

이 덕 순 (김지연 엄마)

팅티르르 텅티르르... 괴상한 알람소리가 울린다. 한번이라도 덜 듣고 일어나려고 잼싸게 버튼을 눌러 죽인다. 지연이는 아직도 엉덩이를 쳐들고 엎어진 자세로 베개 속에 코를 묻고 있다(겉으름 자는 모습). 원구씨는 얇은 솜이불을 더 힘차게 돌돌 말고 눕는다. 그 다음부터 필름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기억하여 쓰기가 힘들다. 종종 걸음으로 사랑방까지 가기엔 너무 피곤한 모양이다. 자판기 스프로 가끔 달래주고 나면 지연이 얼굴 모양이 'ㄸ'에서 'ㄷ'로 변한다.

조옥 -!! 뽀뽀를 하고 "잘 때 배꼽 꾸시지 마. 그리고 낮에 배꼽 내놓으면 감기걸린다"라는 당부를 하고 나면 나는 그야말로 췌계 그리고 빨리 땅바닥을 두드리며 종압동으로 향한다.

한잔의 커피로 여유있게 근무 시작을 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콧망울이 시큰거린다. 사랑방에 들어가기까지 지연이는 외할머니네서 몇 달, 시댁에서 한달, 동생네에서 한달.... 종잡을 수 없는 성격 변화, 불안정한 지연이의 행동(마구 먹어대며, 심지어는 밥통에 밥이 없으면 울었다는 동생네 얘기)에 충격이 컸었다.

정작 사랑방에 들어갔지만 내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 불과 몇달만에 개인 탁아를 하게 됐고 그때의 금전적 고통과 심적 갈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겨울이 되어 추워도 예쁜 옷 한벌 사 입히지 못하고 줍다시피 얻거나 또는 내 옷 중 낡거나 유행이 뒤진 것으로 만들어서 입혀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예쁜 지연이의 두 볼만이 살아 있음의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었다.

그런 우리가 결정적으로 안정을 찾은 건 내 직장이 종압동으로 옮겨진 후 부터다. 9시 출근 7시 퇴근. 모든게 해결된 것이다. 오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지연이에게도 조금은 신경을 써 줄 수 있을만큼 부자가 되었고 사랑방 친구들과도 친해진 지연이를 보면서 지나간 어려움·고통은 좋은 스승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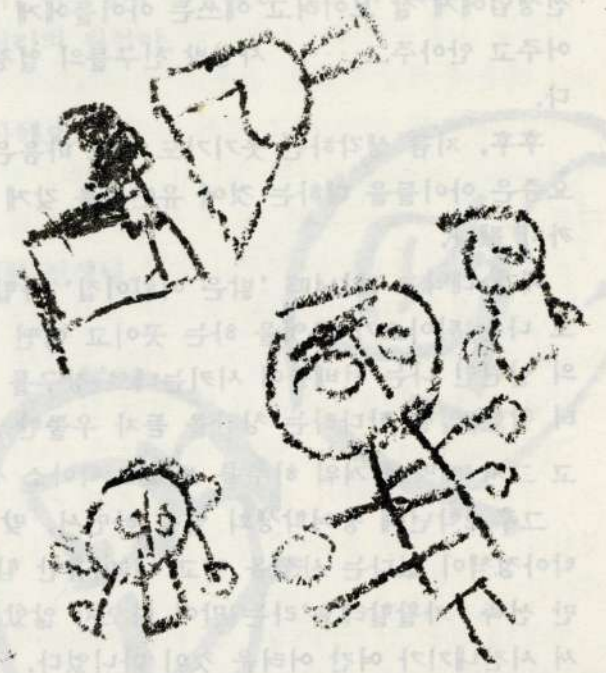
사랑방 일들을 오가며 죄금씩 접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 성장 발육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애쓰신 흔적을 볼 때마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는 자기 주장이 뚜렷해져서 "엄마 나... 나... 엄마랑 아바처럼 커지면 한벌이랑 (동갑내기 남아) 결혼할래. 히히힝...." 이런 말도 듣고 나 보고는 엄마라고 하면서 한벌이의 라이벌인 오한솔의 엄마에게는 어머니라고 꼭꼭 부른다(한솔엄마가 그렇게 시켰음). 아직은 형식보다 감정이 통하는 우리 아이들. 부디 예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커나가길 바란다.

# 아바 엄마에게!

고충길 (아바 아빠)

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소. 늘 시간에 쫓기며 고달픈 직장생활과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웃음 잃지않고, 열심히 꾸려가는 당신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오. 한때 건전치 못한 나의 밖에 생활로 인해 닳쳐왔던 많은 시련과 마음고생 속에서도, 곳곳이 참고 지내온 당신에게 그저, 미안하단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오. 내 비록 아직까지 집 한 칸 마련치 못한 형편이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우리 아아가 있고, 나 보기도 나를 더 잘 아는 당신과,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기에 나에겐 커다란 힘이 된다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이겨 나갑시다. 당신 말처럼 거창한 표현과 남들 앞에서 잘 해주는 척 하는 거짓 사랑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도움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내 노력하겠소. 영원한 내 사랑.....

92년 12월 6일 고충길.



엄마가 아바를 찾아요 (고 아라 여아 5세)

## 예쁜이 선생님과 악동들의 하루

이명란 (국제대 법 3)

“와 못난이 선생님 왔다.”

“와 똥똥한 선생님 왔네요.”

겨울의 문턱에서 해맑게 웃는 사랑방 친구들의 인사로 나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나를 반기는 우리 사랑방 친구들과 만난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처음 자활 한 날이 생각난다. 그 전날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다. 헌데 우리 예쁜 악동들에 의해 나의 꿈은 와르르 무너졌다. 서로 ‘먼저 때렸어요’ 하며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줄줄이 울기 시작했고 처음 본 예쁜(?)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아이들에게 가진것이라고는 힘밖에 없는 나는 있는 힘껏 업어주고 안아주고……. 사랑방 친구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그날 나는 유례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후후,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마음은 김완선인데 몸은 완전히 황정순 할머니였었다. 요즘은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의 사고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됐다.

내가 대학교 1학년때 ‘밝은 어린이집’ 자립기금마련 일일주점이 열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탁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여건속에서 운영되어지는지 모르고 당시 풍물패의 일원인 나는 선배들이 시키는대로 장구를 치며 동네 산비탈을 썰고 다녔다. 사람들로 부터 착한 일을 한다라는 칭찬을 듣자 우쭐한 나는 왜 일일주점을 열어야 하는지엔 관심이 없고 그저 제멋에 겨워 하루를 보냈고 탁아소 선생님의 자활 권유도 그저 먼 일로 느껴졌다.

그후 2학년때 총학생회 일을 하면서, 맛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볼 탁아소가 부족하고, 탁아정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미흡한 힘이지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은 했지만 선뜻 ‘자활할래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학원 민주의 열망이 높았던 학교상황에서 시간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당시 우리 학교는 전임교수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강사를 채용했으며 턱없이 모자라는 교실과 학생회실은 고려하지 않고 과만 늘렸고, 도서실과 식당은 콩나물시루처럼 언제

나 뻥뻥하고 식당과 매점 또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보다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급급하였다. 이를 개선하려고 학우들은 집에도 못가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량 징계와 구속이 계속 되었고, 그속에서 갈피를 못잡은 나는 방황과 은둔으로 겨울을 보냈다. 3학년이 되서도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던 내게 많은 선배들과 동료, 후배들의 도움으로 차츰 나의 생활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더욱 바쁘게 살기로 결심했다. 탁아자활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이젠 나의 장래 직업으로까지 생각하게 됐다.

요즘은 일요일만 되면 긴장이 된다. 우리 사랑방 아이들과 만나는 날이 월요일인 나는 하루 놀아주는 것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여쭙보기도 하지만 마음처럼 잘되지 않는다. 후후, 업살이 심했나?

어리광쟁이 지연이, 우유를 막걸리라며 ‘건배’하며 맛있게 먹는 한별이, 나의 식사량을 능가하는 폭지, 나를 가장 잘 따르고 사랑방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하는 아라, 그림을 잘 그리는 지혜, 사랑방의 막내동이 아란이, ‘싫어요’의 태훈이, 서태지를 좋아하는 영태, 압전한 외모와는 반대로 괴성을 지르는 미형이, 토끼처럼 귀여운 눈을 가진 오한솔, 눈물의 여왕 또다른 한솔이, 나의 신성한 영당을 철석 때린 호식이, 사랑방의 골목대장 대운이, 애교만점의 지은이, 엄마만 좋아하는 우빈이, 곱슬곱슬 파마머리의 원혁이.

사랑스런 사랑방 친구들!

명란이 선생님은 여러분을 무지막지 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요.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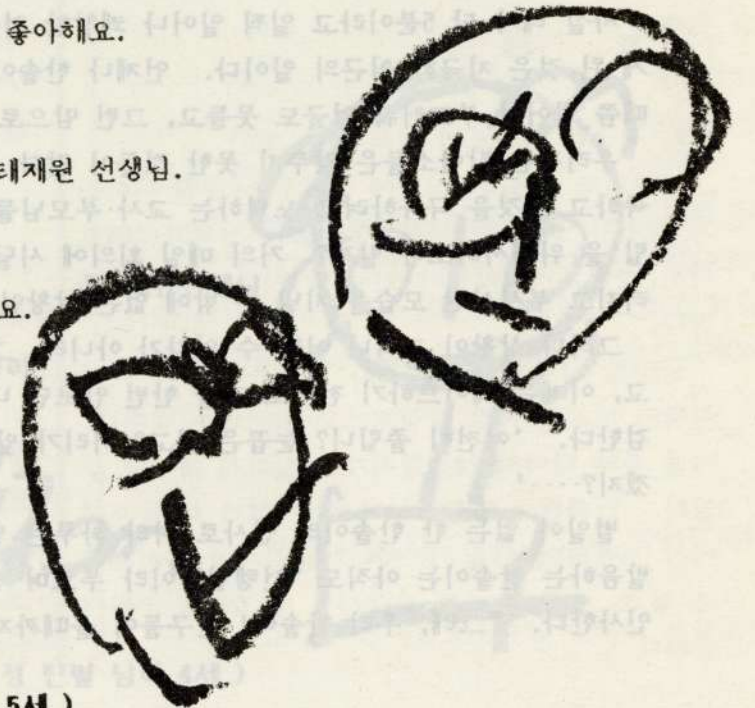
시험공부도 못하게 하고 글을 쓰게 만든 태재원 선생님.

12월달에 결혼하시는 김경태 선생님.

사랑방의 시어머니 조경희 선생님.

모두모두 즐거운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세요.

이젠 정말 끝.



엄마랑 아빠랑 지는거예요 (김 대운 남아 5세)

## 웃을때와 잘 때 그리고 뽀뽀할 때가 가장 예쁜 우리 아이들

태재원 교사

아침이 되면, 바닥으로 부터 찬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고 시계가 울다울다 지겨워질 무렵이 되어서야 머리에 번개 맞은듯 번쩍이면 이미 시계는 8시 5분전!

부리나케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T.V를 켰다. 오늘은 누가 제일 먼저 오게 될까?

대부분 김한솔이 8시 5분경에 오지만 가끔은 한솔이 어머니도 늦잠을 잔다며 늦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궁금함, 설렘으로 아이들을 기다린다.

사실 내가 단 5분이라고 일찍 일어나 쾌활한 얼굴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언제나 한솔이 엄마가 쿵쾅 두드리며 한숨을 한번 내쉴 때쯤 일어나 부끄러워 얼굴도 못들고, 그런 맘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같은 탁아소들은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간·교재·교구가 부족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부모님들은 늘 피곤하다. '올바른 탁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라고나 할까? 거의 매일 회의에 시달리다 평균 5시간도 못되는 수면으로 찌그러지고 부시시한 모습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 극복해 보리란 결심을 했고, 이제는 데이트하기 전에도 거울 한번 안보던 내가 미끄럼틀 앞에 서서 거울속의 나를 정겹한다. '여전히 졸립니? 눈곱은 없고? 머리가 앞을 가려 답답한건 아니니? 복장은 단정하겠지?...'

별일이 없는 한 한솔이의 인사로 나의 하루는 열린다. '조경희 선생님'을 '조갱인'으로 발음하는 한솔이는 아직도 "텐탱님!"이라 부르며 긴밤내내 나를 보고파 했던 것처럼 반갑게 인사한다. "그래, 우리 한솔이! 친구들이 올때까지 뭐 할까?"

엄마와 헤어져 사랑방으로 들어서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모두 섞여 있을때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교사의 수는 적는데 비해 아이들은 많으니 저희 나름대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내다리에 질질 매달려서 화장실을 가든 부엌을 가든 연신 뽀뽀를 해대는 녀석!

"선생님은 왜 동생들만 예뻐해요?" 내놓고 따지는 큰 딸!

큰 덩치로 말없이 내 등을 올라타거나 무릎에 비비적대며 파고드는 아이!

눈만 마주쳐도 몸을 꼬아대며 어쩔줄 모르며 웃음을 까르르 내뿜는 내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이 엉켜 서로 얼굴을 핏키지 않나 광대뼈를 뚫히니 깨물지 않나! 식사시간 때 서로 옆에 앉으려고 포크를 들고 싸우고...

전쟁같은 시간이 지나 하나하나 꿇고 누워 "눈 꼭 감고, 혼자 자도록 노력해 봐! 우리 조급만 자고 나서 재미있게 놀자!" 하며 토닥거리고 나면 자는 입술, 볼에 마구 뽀뽀해 주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다시 예뻐진다.

그래! 아이들은 역시 웃을 때와 잘 때 그리고 뽀뽀할 때가 제일 예쁘더라.

애들아! 우리는 정말 어른들을 닮지 말자. 그러나 하루를 마감할 무렵 나 역시 '어른'이 아닌가 문득 깨닫는다. 가슴에 사랑이 가득 채워진, 아이들을 향해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길 바라는 그런 어른이고 싶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가슴에 내가 남을 그런 어른이고 싶다.

애들아! 우리 그렇게 살자꾸나!

태 재원선생님

한별이

한별이



한별이랑 태 재원선생님 (정 한별 남아 4세)

## 올바른 탁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 I. 들어가는 말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은 그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라고 할 때, 미래를 책임져갈 우리네 아이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 가운데 올바른 탁아정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2년도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탁아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정리해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 II. 몸말

#### 1. 국공립 탁아소의 양적 확대 방안

1992년도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공립 탁아소가 포괄할 수 있는 보육대상아동은 전체의 10%도 되지 못하고 90% 이상이 민간탁아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국공립 탁아시설의 설치와 지원은 정부의 탁아정책의 의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탁아시설의 설치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스웨덴은 6세이하 아동의 50%가 탁아 시설에서 보육되며 이들 중 80%가 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전체 보육시설 중 59%가 공립시설이다.

☞ 국공립 탁아소가 더욱 확대 설치되어야 하며,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정도를 포괄해야 한다.

#### 2. 민간 탁아소의 적극적 지원방안

1) 우리나라 탁아사업의 90% 이상이 민간 탁아소라 할 때, 탁아사업의 영리화를 막고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간 탁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의 인건비이다. 정부가 민간 탁아시설을 통해 탁아 대상아동의 대부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원이 없는 시설의 확대도 없고, 보육료의 인상, 편법운영(종일반 기피) 등의 영리화로 인해 이용자의 부담을 늘리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민간탁아 시설에 대한 지원이 문제 해결의 열쇠, 특히 인건비의 지원이 급선무

2) 미인가 민간탁아소에 대한 3년의 경과조치(94년 1월)가 있으나 저소득층 지역 탁아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기 힘든 곳이 많다.

☞ 시설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재정 보조금으로 시설설치를 지원하거나 용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 3. 아동 지원 방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지원은 월소득이 60

만원미만인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단가(약 10만원)의 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월소득이 60만원인 경우는 극히 적은 수이며(전체의 6.3%) 60만원 소득의 가정과 61만원 소득의 가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시 근로자가 국공립, 민간 비영리 탁아소를 이용하는 경우 60~120만원(64%) 사이의 소득 분포를 이루고 전세가 45.4%, 월세가 42.4%로 전월세 가구가 일반적이다.

☞ 아동지원에 있어서 지원 기준은 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주거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원 요구시 월급명세서가 부적절한다.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 4. 직장 탁아소 설치 및 지원방안

1)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대부분 100 150명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밀집되어 있다.

☞ 직장 탁아소 설치기준은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2) 직장 탁아소 운영에 기업주가 운영비의 80% 감당하는 대신 조세감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중소 사업장으로서 이것 역시 쉽지 않다.

☞ 150~500인 사이의 사업장은 기업주의 운영 부담비를 50%로 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보조,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정부가 시설 설치와 운영을 보조하거나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 5. 영아 탁아의 현실화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가 2개월 뿐이고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이다.

☞ 보다 현실적인 영아규정이 필요하고 또한 영아탁아를 현실화 하기위해 고시 대 영아의 비율을 1:7에서 1:3으로 낮추고 비율하락에 따른 고시 인건비 증가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 6. 탁아정책에의 참여 방안

현행법에 의하면 보육위원회라는 형태로 중앙과 각 지역에서 탁아의 주요문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위원은 임명되어 각 분야의 대표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성이 없고, 그나마 관례적으로 형식화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 보육위원회가 실질적 대표성의 부족과 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대표(학부모, 시설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를 동일비율로 하며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 7. 보육교사 경력 인정문제나 교사 양성문제에 대한 방안

1) 보육교사의 경력인정문제에 있어서 보육교사

의 자격 기준은 보육 서비스의 특수성과 종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개발과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의 이수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양성기관의 부족, 업무과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기관의 경우 영리화(약 50만원의 수강료 부담)되어 저임의 교사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영리화를 방지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이상 각 항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분이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 III.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지 정부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부모님들과 교사, 자원활동가, 후원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끊임 없이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탁아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체로 세우는 일 또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때만이 민간 탁아소의 양적·질적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탁아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눈사람하고 놀았어요 ( 김 지은 여아 5세 )



## 엄마들에게 물어보았어요

### I.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

★ 진정한 '서민의' 대통령 ! → 일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통령 아저씨이길.  
→ 돈 못버는 것도 억울하다. 탁아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통령을 나는 절대적으로 바란다.

★ 시민들의 애환에 귀기울이고 실천하는 대통령 !  
딱조만 복지사회라고 떠들지 말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탁아소에 대하여 전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면 좋겠다. 지원의 내용은 교사들의 처우개선(8시간 노동과 인건비 지원), 탁아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확보와 간식비가 지원되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일하기를 바란다.

★ 탁아소를 지원하는 사납을 요구한다.

★ 우리 아이들은 양차고 아무런 꺼리낌없이 잘 크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곳곳이 생황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힘이 생긱게 하는 사납이었으면 한다.

★ 영세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



★ 사회구조적 문제를 자신있게 고칠 수 있는 대통령. 허수아비가 아닌 실력있는 사람. 군권이 없이는 서유하나도 댈 수 없고 심지어는 세균징수에 있어서도 군권이 통하는 사회속에서 열심히 사는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노력한 만큼 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사채나 투기행각을 정부고위층이 영끌없이 문어방식으로 해먹는,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잘 살수 있는(법도 돈 아래있음) 대한민국이란 오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실무적인 대통령이 되면 더없이 좋겠다.

★ 영세민 측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 듣기 좋은 공약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민측, 약한자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분이기를…….

★ 군통을 주고 되는 대통령 보다는 진실로 약한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 II. 이번 대통령 선거때 어떻게 할까요?

♣ 첫턴 공약 낭박하지 않는 진정한 일꾼을 내손으로 뽑겠다.

\* 타아정책 지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겐 무료로 선거운동 해주겠다.

♣ 현재 후보들 공약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

후보들의 과거 정치활동 경력을 주시하겠으며 여성의 문제, 타아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찬표!!

♣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꼭 찬표를 던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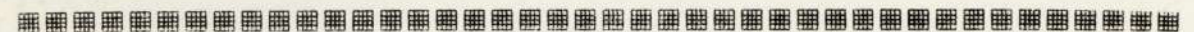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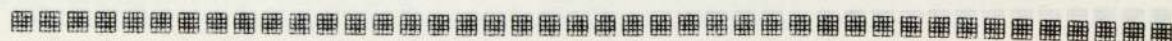
♣ 난 뽑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 세상짜리 동화책 읽어주기식 공약을 낭박하면서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땠는가? 물론 본인(대통령)이아 국민도 상찌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지만 지하망같은 조직들이 보이지 않는 칼을 디밀고 있는대야…….

정말 깨끗한 대통령같은 누군가. 누가 터더라도 사회비리와 열심히 살려는 서민들의 힘받이가 되는 일등(여성노동법 또는 타아법)과 더불어 급전적 대충관전의 완화 그리고 주택마련의 쉬운 방법 예시라든가 좀더 현실적으로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이 터주었으면, 그사람이 그사람이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찬표를 행사하겠다.

♣ 영세민을 위하여 열심히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 투표는 꼭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정당한 찬표를!'



##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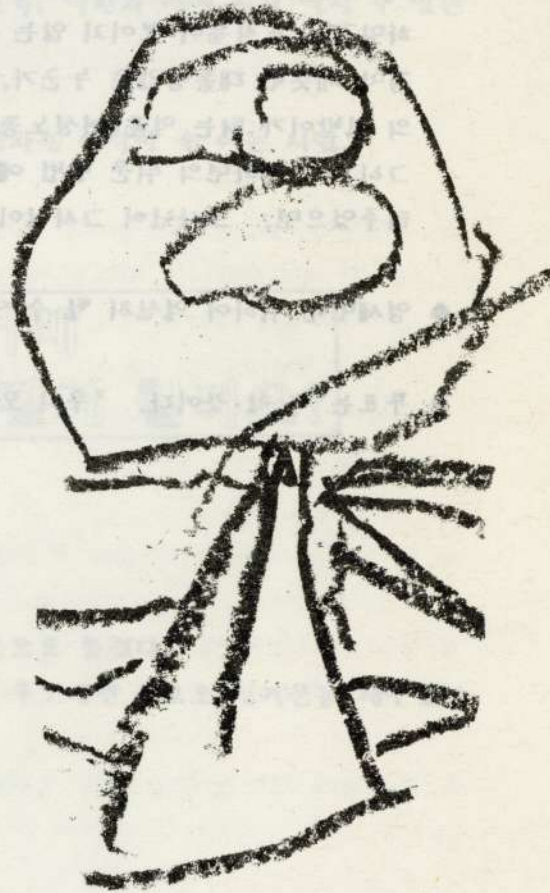
이덕순 (지연 엄마)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퇴폐풍조, 사향주의, 금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통령을 원한다. 얼굴없는 암흑의 세력에도 굴함이 없는 뚝뚝한 사람. 그 어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정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으면 한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 썩어가는 내장은 치료하지 않고 얼굴에 분칠하기에 바빴던 시절- 일들이 야말로 열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이다. 토지공개념제도,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농수산물의 직판(소비자와 생산자의 손쉬운 만남) 노동인력의 극대화를 위한 여성·탁아복지법개정, 서민의 꿈인 주택마련정책, 확실한세금 징수와 분명한 쓰임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일 것이다. 거기에 조금 더 합세한다면 졸속 외교정책(웃돈주고 외교하는것, 빈집데기 칼기 블랙박스를받고도 감지덕지 했던 저 자세 외교) 그리고 엉망진창인 교통행정.....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직도 돈봉투가 통하는 사회속에 우리는 산다.

내가 바라는 대통령은 적어도 돈만 있으면 범마져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행복한 나라 코리아라는 오명을 벗겨낼 수 있는 성실 근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괴물 ( 김 지연 여아 4세 )

## 공명선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대통령선거 이렇게 합시다 〉

1. 유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합니다.
2.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성숙한 유권자가 됩시다.
3. 각 후보자의 정책과 민주적 자질을 올바르게 알고, 민주화 실현, 민중의 생존권 보장, 민족의 평화통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찍읍시다.
4. 돈, 선물 제공하는 후보는 절대로 찍지 맙시다.
5.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 (공무원, 통·반장)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즉각 고발합니다.
6. 언론이나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즉각 항의하도록 합니다.
7.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절대 기권하지 말며, 무효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내한표를 지킵시다.
8. 나의 권리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부재자투표를 꼭 합니다.
9. 선거 당일 부정에 대해서도 막아냅시다.
10. 선거 후 당선자에 대해서 그들의 공약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합니다.

## 〈 우리가 바라는 정부·정책 〉

1. 맞벌이 부부가 버는 돈 만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부
2. 집주인 눈치 안보고 오르는 전·월세값 걱정 없는 아담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부
3. 우리 아이 안심하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 정책
4.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회사의 부도나 위장폐업, 월급 떼먹는 사장 혼내주는 노동 정책
5. 학생·노동자들의 데모, 엄마들의 서명과 가두행진을 할 필요가 없는 정부
6.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걱정 덜어주는 농민 정책
7.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인건비도 주고 넓은 공간을 위해 시설 지원도 해 주고, 모든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탁아 정책을 가진 정부



## 사랑방 어떻게 생겼어요?

三

거꾸로: 이렇게 되어도 수다쟁이처럼 욕망하는 자에게는  
 답이 더 잘 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함께 모여서 나눔대로 의정하게  
 하심하는 곳이면. 오직 내내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낙심으로 회복하는 곳에도 하심!

동생들보다 지성 회생이 많은 형님들!  
 누님들 태우고 모기가 꼭 해야 하는  
 다크(?) 형님들의 제 나들대의 향  
 반을 향하는 곳입니다!

기원

1944

어러가지 탐미하는 놀이감  
 신기한 것이 많고 거기에나 스캔닝 놀이감  
 이유하나만으로 다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맛나는 간식이 비할수 없는 곳이에요  
 신비로운 세계나  
 상상속의 나라  
 만나요!

마구  
 뛰고 놀고 하는 거 보면  
 즐겁고 놀라 흥이 있을 만  
 만만하

明

하루종일 먹고 놀고 하는 건 변변  
거나 한바퀴는 족히 돌라 넣을 양이 많은 만큼  
항상 머리가 가득한 듯이 남는다.  
어제와 정반대일 때  
머리를 바와나방이 먹기위함임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의 환기는 꼭 해주어야 하는 공간이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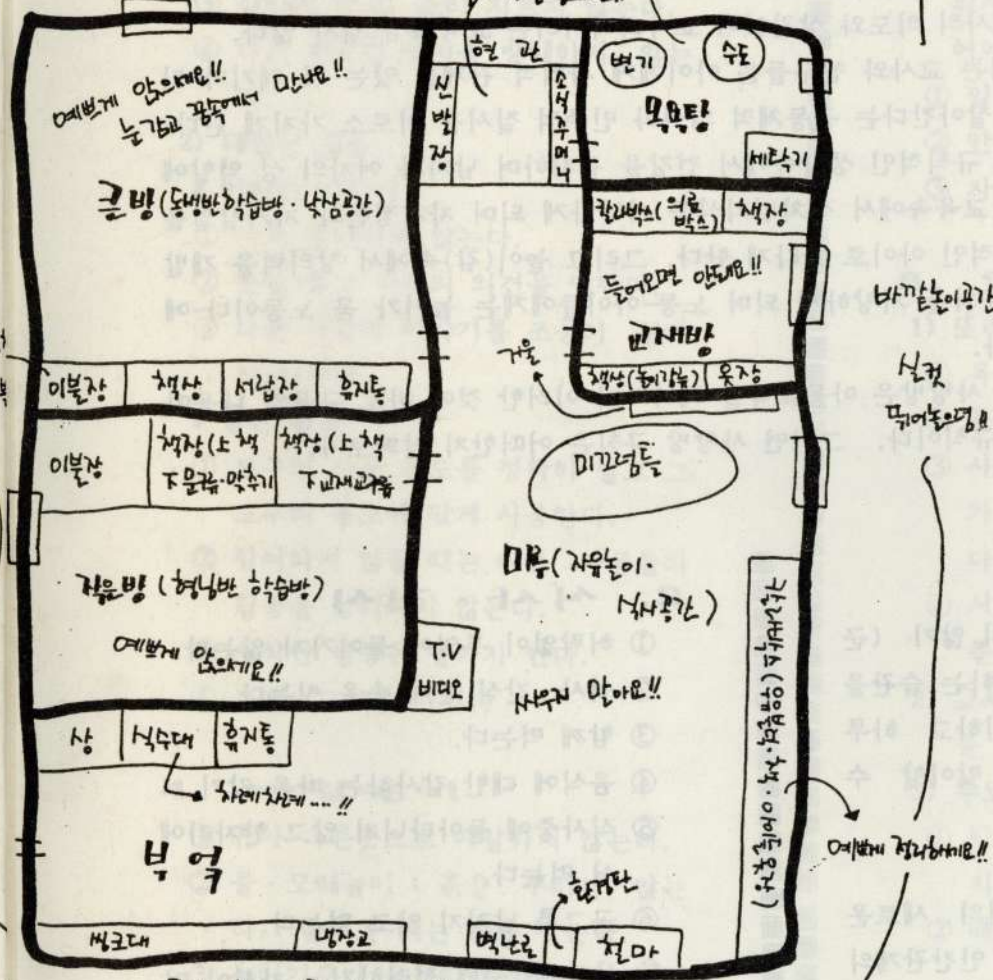
1. **모든 경험과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과**  
**마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2. **아이들이 잘 먹어주길 바라며**  
**그리고 그들과 이 세상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3.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악당

똥배에 오줌병씨가 잔뜩하늘로  
 누워 항문병 똥을 싸 놓을  
 비록 흐물흐물 대변하셔  
 근데요! 항문으로 내지않 내가  
 오줌에그집나들듯이 개싸같이  
 시스하로 이빨한뒤로  
 예뻐양자병과 꽃장님이 되어 갑니다.

"저대! 애들한테 알리지 마라. 바보들이야!"

"이~야! 애크를 만나야해!"  $\frac{1}{2}$ 로 아까 애기가 나~어났을 거.  
 "아~야, 애기가 처음 만났을 곳이야."  
 "그래서 만나야해!"  $\rightarrow$  제발 실패 말고 마세요!  
 $\rightarrow$  NHK...



두려움과 불행이 끊어지면 신변안으로 인출하는 것. 개월.  
신변안에서 제대할 국민군인과 하인간도 끊어지, 한 번  
국민군인은 끊. 많은 하인과 태아아래 12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무엇으로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

## 어린이 사랑방 생활 규칙

탁아소에서 아이들은 10 ~ 12시간이라는 하루의 반 가량을 보내기 때문에 탁아소의 올바른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적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육되어버리는 교육과정 역시 많다.

탁아소에서 관계를 갖게되는 교사와 친구들은 아이에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첫 계기가 되는 의미에서 중요한데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적 의식과 민주적 질서를 비로소 가지게 된다. 먹을것을 나눠 먹을 줄 알고 규칙적인 생활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지 않는 교육속에서 성차별의식을 지양하게 되며 자기정돈과 자기할일을 할 줄 아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로 자라게 한다. 그리고 놀이(감)속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지향하게 되며 노동-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노동이다-에 대한 참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사랑방은 아동교육을 해나가며 이러한 것이 바로 규율의 내용이며 규율을 실천하는 방식이 규칙이다. 그러면 사랑방 규칙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1. 등원

- ① 집에서 음식물 가져 오지 않기 (군것질하지 않고 아침식사하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하루의 처음인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 ② 인사하기
  - 새로운 장(탁아소)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작으로 인간관계의 첫 성립
  - 교사가 인사 유도
  - 이후의 사회생활의 토대로서 스스로가 당당해 질 수 있다.

### 2. 식사·간식

- ① 허락없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② 식사·간식 전에 손을 씻는다.
- ③ 함께 먹는다.
- ④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갖기.
- ⑤ 식사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 서 먹는다.
- ⑥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는다.
- ⑦ 식사 후 주변 정리하기 - 자신이 먹은 그릇 치우기
- ⑧ 식사시 조용히 이야기 하면서 먹을 수 있다.
- ⑨ 식사시 선생님도 함께 먹는다
  - 도움을 주고 아동의 식습관 파악.

### 3. 실내놀이

#### 1) 자유놀이

- ① 장난감 나누어 놀기
- ② 장난감 분류해서 치우고, 제자리에 놓기
- ③ 심하게 뛰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 ④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 2) 대집단 활동

##### \* 이야기 나누기

- ① 서로 장난하지 않는다.
- ②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듣는다.

##### \* 일반 활동

- ① 도구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고 그 도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참여하지 않을 때는 다른 아동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시작한 활동은 끝까지 한다.
- ④ 교재·교구를 아낀다

### 4. 바깥놀이

- ① 혼자 다른곳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 ② 물·모래놀이 : 흙을 뿌리지 않는다. 들어올 때는 손을 씻는다.
- ③ 놀이기구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5. 대소변

- ① 대소변은 정해진 곳에서 한다.
- ② 혼자 못할 경우는 의사표현을 한다.

### 6. 옷 입고 벗기

- ① 스스로 한다.
- ② 정리해서 자기 장에 넣는다

### 7. 낮잠 (생리학적으로 잠이 없는, 필요치 않은 아이의 경우 억지로 재워서는 안되지만 생활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는 목적을 뒀)

- ① 일어나서 옷을 바로 입는다.
- ② 안자는 경우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자고난 후 자기 이부자리 개기.

### 8. 인간관계

#### 1) 또래와의 관계

- ① 욕과 상스러운 말은 하지 않는다.
- ② 물고 꼬집고 할퀴고 때리지 않는다.
- ③ 사이좋게 지낸다. 예를 들면 교사가 올바른 애정표현의 모범을 보인다.
- ④ 서로 돕는다. - 동생과 같이 놀아준다.

#### 2) 교사(자할 포함)와의 관계 : 존댓말을 사용한다.

#### 3) 부모와의 관계

- ① 탁아소 내의 규칙들은 가정에서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떼쓰지 않는다.

### 9. 시설물 사용

- ① 휴지, 물 등을 아껴쓰고 교사들의 물품을 만지지 않는다.
- ② 질서를 지킨다.
- ③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 김지은(꼭지)네 이야기

아빠의 활달함과 엄마의 자애로운 미소 속에서

사랑으로 속속 크는 꼭지와 상연아, 더욱 밝게 자라라.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몇개의 돌계단을 올라서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금전 사랑방에서 보았던 지은이가 엄마와 함께 반갑게 우릴 맞았다. 태어난지 갓 두달이 지난 지은이의 동생 상연이(남)는 함께 놀아달라는 듯이 웅얼이로 인사를 한다. 어느사이 지은이는 함께 간 아빠 지연이, 한별이와 함께 장난감이 있는 전년방(?)으로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언제 준비를 했는지 지은이 엄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와 함께 배고픈 우리들을 위하여 꾸집한 저녁상을 차려 주셨다. 속이 출출한 우리들은 거뜬하게 밥 한 공기를 비웠다. 첫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잘생긴 상연이가 벌써부터 안아달라고 칭얼대는 모습, 그 아이를 아주 예뻐하는 누나 지은이의 의젓함이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9시쯤 퇴근하신 지은이 아빠는 연신 싱글거리며 아들 상연이의 탄생을 만족해하셨다. 상연이를 임신했을 때 보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딸인것 같다고 하며 '아! 딸딸이 아빠가 되나 보다'하고 내심으로는 걱정이 되었고 지은이 엄마 역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걱정하셨단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 부부 궁합이 찰떡궁합이란단다. 점수를 매기자면 400점짜리 부부임을 확인하였으나 .....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지은아빠의 걸걸한 유우머가 방문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지은이 엄마와 아빠는 왕십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A급 미싱사로 일하면서 눈이 맞아(?) 곰창집에서 사랑고백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삼양동 산동네로 이사오게 된 것은 하청일을 맡아 맛벌이를 하기 위해 지은이를 친정 언니에게 맡기려고 한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던 중 사랑방을 알게 되어 지은이는 사랑방 아이가 되었다. 상연이를 낳고 부터는 하청일도 정리하고 지은이 아빠가 다시 왕십리로 일을 나가게 되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집에서 일을 계속하면 시끄럽고 먼지가 많아 아이에게 좋지 않으리라 생각하셨단다. 이제는 미싱일 하지 않게 되어 어떻냐고 묻자 집에 있는게 답답하고 가진게 기술이니 언제 미싱일을 다시 시작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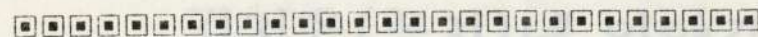
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은이 아빠는 이제 상연이 키우고 욕심을 부리자면 아들이나 딸 하나 더 낳아 보는게 어떻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지은이 엄마도 하나 더 낳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 자식 욕심이 똑같은 것만 보아도 분명 찰떡궁합 같았다. 사정만 허락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이사하고 싶은 희망과 네 가족이 별 탈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지은이네 식구들의 바램이란단다.

어른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아이들은 제각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있었고 상연이는 오줌 기저귀를 갈아 주자 천사처럼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아이들 마음처럼 걱정 없고, 새근거리며 잠든 상연이의 마음처럼 평온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이의 집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서 상큼하게 빛나고 있는 작은 별같은 소망이 항상 지은이네 가족에게 머물기를 바라고 항상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빌어 본다.





## 어린이 사랑방이

1980년 임혜숙 선생님을 포함한 9명의 선생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양동 지역의 탁아소 운영 팀을 결성하여 10월에 지진아들을 위한 공부방과 한벗 유아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운영 난으로 81년 4월 문을 닫고 9월에 다시 작은 건물 옥상에 천막 유아원을 개원하였으나 철거로 인해 부근으로 이사를 하였다. 83년 11월에 결손가정 아동을 숙식아동으로 보호, 84년에 영아 탁아소를 개원하여 영아·숙식 탁아를 하였다. 또다시 철거로 인해 삼양동과 회현동으로 나누어 이사를 하게 되고 85년 7월 삼양동에 '어린이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지금의 탁아소가 시작되었다. 86년 9월에는 삼양동과 회현동을 합하여 현재 위치에 이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6년이 넘게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 왔는데 그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바로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사랑방 경매사건'이 아닌가 한다. 그 사건은 사랑방을 폐쇄시켜야 될 위기로까지 몰고 갔는데 지금까지 사랑방을 거쳐가신 많은 어머니들의 힘을 모아 지금의 사랑방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삼스레 그 당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나마 경과보고를 통해 어린이 사랑방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 < 경과보고 >

86. 9. 현재의 사랑방에 입주(전세 1100 만 원)

87. 4. 경매사건 발생

8. 새 주인으로 사랑방 건물 경매 낙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금 1,100 만원 중 300만원만 보호 받음)

9. 사랑방을 비워달라는 새 주인의 소송으로 재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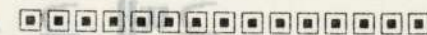
10. 재판 결과 새 주인과의 재계약 또는

집을 비우라고 법원에서 결정. 새 주인에게 300만원에 월세 17만원으로 요구(자모회에서 5만원 부담하기로)

· 새 주인이 300만원에 월세 24만원 요구.(이 때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재계약 또는 300만원만 받고 집을 비워 주었음)

· 임혜숙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 새 주인과의 대화 어려움.

## 어떻게 살아왔는고 하니...!!..



김 선미(전 교사. 현재 오한솔 어머니)

· 법원에 재판 연기 등의 탄원서 제출.

88. 2. 비상 자모회 소집. 자모회 논의 결과 일일찾집 열기로.

제 1 회 일일찾집 개최. 수익금 150 만원.

3. 임혜숙 선생님 사임.

· 모든 사랑방의 문제는 교사 3인 (김 경태, 김선미, 정미경)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원장체제 폐지.

· 새 주인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300만원에 월세 17만원으로 계약.

10. 헌옷 시장 개장. 수익금 27만원

89. 2. 제 2회 일일찾집 개최. 수익금 186만 원

3. 보증금 700만원에 월세 12만원으로 재계약

90. 2. 제 3 회 일일찾집 개최. 수익금 92 만원.

91. 2. 제 4 회 일일찾집 개최. 수익금 93 만원.

3. 전세 1,700만원으로 계약.

92. 2. 제 5회 일일주점 개최. 수익금 180 만원.

3. 전세 2,000만원으로 재계약(계약기간 2년)

휴! 이제 한동안은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러나 ..... 94년 1월 이후(탁아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평온한 사랑방에 더 큰 시련이 닥칠지도 모른다. 정부는 우리와 같이 험난한 길을 걸어 온 탁아소들을 감싸안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김 명 선 (졸업생 정인경 어머니)

김장철이 한창인 요즈음 갑자기 현재 자모회장님(한별어머님)에게 사랑방 회보에 실을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과거 우리 큰딸(현재 국교 2년생) 인경이가 사랑방 다닐때 잠시 자모회장을 맡고 있었다.

때는 6년전으로 돌아간다. 인경이가 사랑방에 맡겨진 것은 87년도. 구정연휴가 끝날 때 나는 사랑방을 노크했다. 그당시 사랑방에는 구정연휴 때라 다른 선생님들은 안계시고 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임혜숙 선생님)만 계셨다. 나는 그분과 상담을 하였다. 일인당 보육료는 얼마이고, 아이의 성격은 어떠하고 현재 가정형편은 어떠어떠하다 등등. 사랑방을 알게 된 것은 전봇대 광고를 보고서이다. 간단한 상담이 끝나고 구정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인경이는 사랑방 식구가 되었다.

식구가 된 후 곧 사랑방에 잔치가 있었다. 사랑방에서 오곡밥을 준비하고 엄마들은 나물만 준비해 보름놀이를 했다. 내가 들어간후 처음으로 가진 모임이었다.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번다는 것이 웬지 축스럽고 부끄러웠는데 모임에 참석한 후 그

런 마음은 어느새 사라졌다. 간단한 게임과 웃놀이를 하는 동안 어느덧 엄마 아빠들은 비슷한 환경에 서로 위로하며 잠시 부끄러운 기분을 사라지게 하였다.

그때만 해도 사랑방은 평화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가지 못했다. 사랑방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87년 5월로 기억된다. 집주인이 집을 저장잡혀 사랑방이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다. 영문도 모르는 우리들은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얼굴이 노랗게 되어버린 원장님은 사랑방 전세금마저도 못받게 생겼다고 하셨다. 회의 결과 집 경매장에 엄마들이 함께 가보기로 하였다. 드디어 경매날이 다가왔다. 엄마들 몇명이 경매하는데 갔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냥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그때 당시 300만원만 겨우 건졌다.

그때부터 사랑방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 하지만 300만원을 가지고는 사랑방 식구들은 갈 곳이 없었다. 임혜숙 선생님(당시 원장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사랑방은 엄마들의 도움없이 운영할 수가 없다. 엄마들이

힘을 합하여 사랑방을 지키자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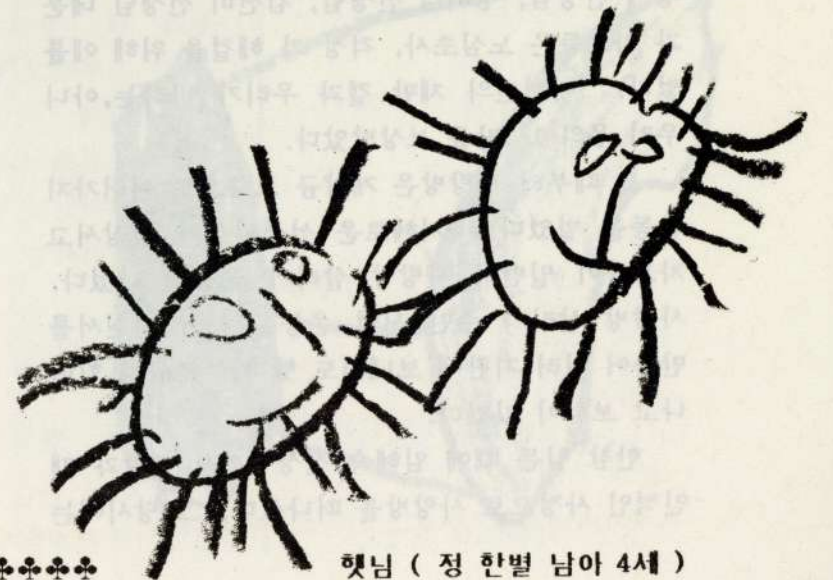
그래서 우선 집을 경매에서 사신 분(현재 집주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분은 청량리에 살고 계셨다.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3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17만원에 합의를 보았다. 그때부터 사랑방은 매월 찾아오는 월세 때문에 매우 어려웠었다. 그로인해 제일 먼저 시도한 헌옷 바자회를 시작으로 일일 찻집 등 난중 행사로 자리잡아 갔다. 현재 헌옷 바자회는 없어졌지만 일일 찻집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여튼 우리 엄마들의 힘으로 사랑방은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계약 기간만 되면 또 불안에 떨며 집주인을 만나 사정하고 또 매달리며 몇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드디어 90년 3월에 졸업을 하였다. 정말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였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 때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막상 졸업을 하니 섭섭한 마음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지나간 일들 중에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다. 행사 중에 이장호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김추련도 만나 티켓도 팔아보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막상 떠나려 하니 웬지 아쉬움이 더했다.

사랑방 행사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임혜숙 원장 선생님이 몇몇 선생님(김경태, 김선미, 정미경)과 엄마들에게 사랑방을 맡긴 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

을 금할 길이 없다. 떠날 당시에도 뵈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떠나신 것도 엄마들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당시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여 원장 선생님만 원망하며 몰아 세운 것 같았다. 건디기 힘든 원장선생님은 떠나셨다.

이제 사랑방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은 것 같다. 못 다한 일들은 또다른 만남이 되어 새로운 엄마들이 채워주시고 이제 졸업생 엄마들은 행사때만 찾는다. 갈때마다 사랑방은 발전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선생님도 열심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동네 엄마들 열정이 대단하시다. 우리 사랑방 엄마들한테만큼은 이 사랑방이 어느 탁아소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장소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졸업생 엄마들도 손님이 아닌 어떤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런 글이 참작이 될수 있다면 사랑방을 지나간 모든 졸업생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햇님 (정 한별 남아 4세)

## 내가 겪은 사랑방 이야기

권 외순(졸업생 장미 어머니)

1987년 4월, 5개월 동안 동네 할머니께서 돌보아 주시던 내 딸 미야를 친구의 소개로 사랑방을 만났다. 동네 할머니께서 봐주시던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환경이며 경제적인 면으로 월동히 좋았다.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심정이야 나만이 아닌 모든 엄마의 마음이 똑같을 것이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랑스런 자식을 맡기고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으니...

그렇게 기쁜중에 시련이 왔다. 사랑방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의 임혜숙 선생님, 김경태 선생님, 정미경 선생님, 김선미 선생님 네분과 자모들은 노심초사, 걱정과 해결을 위해 애를 썼다. 여러번의 재판 결과 우리가 바라는, 아니 우리 몫의 1/3만을 보상받았다.

그 때부터 사랑방은 계약금 보증으로 여러가지 운동을 벌였다.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자모들이 밀면서 사랑방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사랑방 살리기 주민 서명 운동을 해서 탄원서를 만들어 여러 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조금씩 힘이 나고 보람이 있었다.

한참 힘든 때에 임혜숙 선생님께서 건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방을 떠나셨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문제로 경황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랑방이 태어남은 임선생님의 힘이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떠난것이 못내 아쉽다. 이후로 김경태 선생님, 김선미 선생님, 정미경 선생님 세분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힘든 엄마들을 리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

처음 일일 찻집을 열었을 때 자모들 부담은 더욱 컸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기다 티켓 판매, 또 찻집 준비로 모임도 여러번 가졌다. 일하는 자모들로서는 힘겨운 일이었다. 거기다 티켓 판매가 막막한 자모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아 배당된 티켓값으로 내기도 했다. 몇몇 임원들과 교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상점과 약국, 사무실 등을 돌면서 티켓을 판매하고 사랑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래도 세상은 험하고 차갑지만은 없다고 느끼며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소득을 얻었다.

찻집이 끝나면 엄마들은 한숨 돌린 것 같았지만 교사들은 재계약이다, 집세 인상 문제이다, 다시 집주인과 싸워야 했다. 2차 3차 찻집을 차례로 열면서 매년 일일 찻집과 헌옷시장동이 사랑방의 수익 사업으로 정착되어 갔다.

나중에 오셨다 그만 두셨지만 김민교 선생님도

사랑방을 위해 많은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중에 한분입니다. 보수가 많거나 일이 편하거나 명예가 따르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들 헌신적으로 일 할 수 있었던 선생님들께 길히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이 이렇게 별탈없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끄는 선생님들의 리더와 호응해서 따르는 자모들이 잘 어울려서 빚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방은 개인의 것도 아니고 교사들만의 것도 아니고 자모들만의 것도 아니고 공동, 즉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즐거워 일한다고 생각하며 끝으로 현 자모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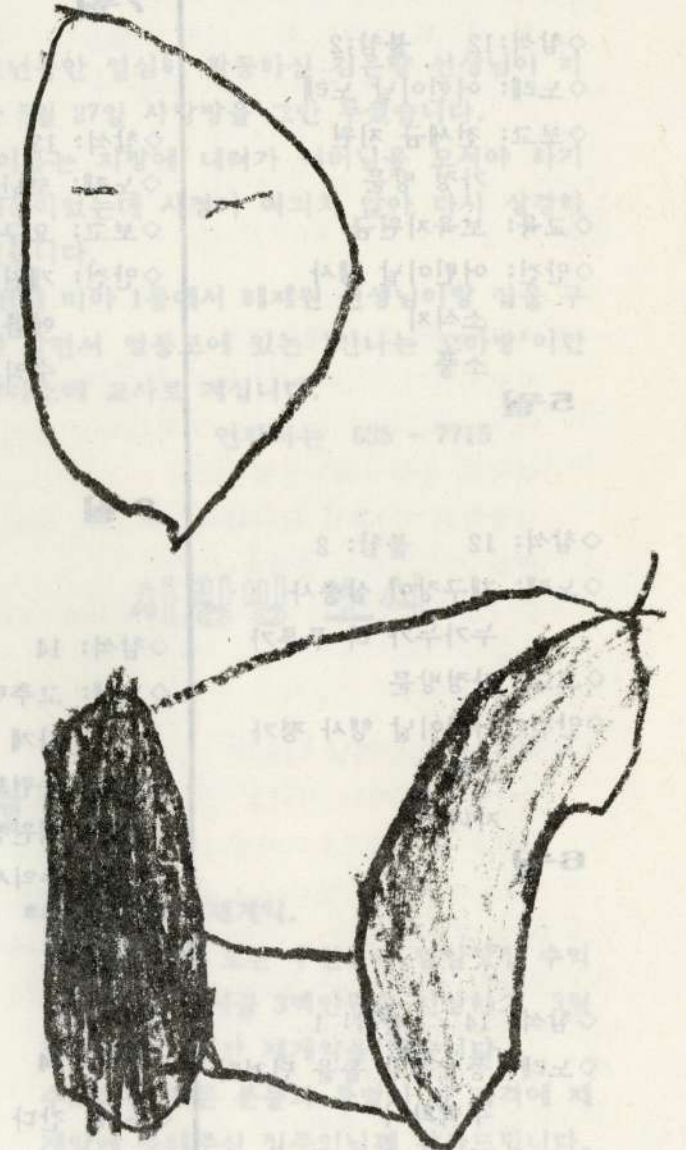
먼저 자모들에 비해 수준도 높고 더 젊고 똑똑하신 자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랑방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가지 처음 사랑방이 어려웠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랑방인지 아셔야 된다고...

단순히 일하기 위해 애기를 맡기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시설 좋은 놀이방보다 더 많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을 강조하고 싶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건디어 온 사랑방에 찬사를 보냅니다.

두서없이 늘어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겨울에 나가는데 눈사람이 와요

( 박 호식 남아 5세 )



## 자모회 소식

## 4월

- ◇참석: 12 불참: 2
- ◇노래: 어린이날 노래
- ◇보고: 전세금 지원  
가정 방문
- ◇교육: 보육지원금
- ◇안전: 어린이날 행사  
소식지  
소풍

## 5월

- ◇참석: 12 불참: 2
- ◇노래: 개구장이 삼총사  
누가누가 더 푸른가
- ◇보고: 가정방문
- ◇안전: 어린이날 행사 평가  
소풍  
자녀교육

## 6월

- ◇참석: 14 불참: 1
- ◇노래: 풍당풍당 돌을 던져라  
수박파티
- ◇보고: 학습교재 구입

- ◇교육: 지원 경과 보고
- ◇안전: 소식지 평가

## 7월

- ◇참석: 13 불참: 3
- ◇노래: 코난
- ◇보고: 요구대회 보고
- ◇안전: 개원잔치  
여름방학  
수익사업

## 8월

- ◇참석: 14 불참: 2
- ◇노래: 고추먹고 맴맴  
사계
- ◇보고: 수련회 보고
- ◇안전: 개원잔치 평가  
수익사업

## 9월

- ◇참석: 14 불참: 1
- ◇노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 ◇보고: 보수교육

- ◇안전: 자모회 회칙  
어머니 대회  
추석 휴가  
마을 노래 자랑

## 10월

- ◇참석: 11 불참: 4
- ◇노래: 딸들아 일어나라  
참사랑
- ◇안전: 어머니 큰잔치  
마을 노래 자랑  
자모회 회칙 통고  
소풍(대학로)

## 11월

- ◇참석: 12 불참: 4
- ◇노래: 펄펄 눈이 옵니다.  
감사의 노래
- ◇보고: 외국어 대학교 나들이
- ◇안전: 어머니 큰잔치 평가  
마을 노래 자랑 평가
- ◇교육: 공정선거에 대하여

## 자원 활동가 소식

##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분들

- 곽미향, 고정미, 조미정 (일반인)
- 신미선, 조승기, 조민정, 안준현, 신승국,  
전남희, 김지혜, 박현경 (국제대)
- 문성은, 차미진, 이은주, 박명은, 이은정  
장은정 (외대)
- 홍은주, 홍수경 (광운대)

— 사랑방을 잊지 않아 주세요—

## 현재 수고하시는 분들

—자원활동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 월요일— 이명란 (국제대)  
기신연, 서운정 (외대)
- 화요일— 허난정, 김은미 (국제대)  
김지현 (외대)
- 수요일— 왕은희, 정은영 (국제대)  
김지원 (외대)
- 목요일— 배종민 (중앙대)  
유미숙 (국제대)
- 금요일— 류지훈 (중앙대)  
김진호 이현구 (국제대)
- 토요일— 김영란 (덕성여대)  
강은숙, 허니운, 이정화,  
김연선 (외대)

\*이외 틈나는대로 강희경 선생님(경희대학원)  
박상훈 선생님(외대)이 오십니다.

## 교사 소식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김은향 선생님이 지  
난 5월 27일 사랑방을 그만 두셨습니다.

이유는 지방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상경하  
셨습니다.

현재 미아 1동에서 태재원 선생님이랑 집을 구  
해 살면서 영등포에 있는 '신나는 꼬마방'이란  
탁아소에 교사로 계십니다.

연락처는 635 - 7715

## 사랑방 소식

## 3월

\*사랑방 전세 재계약.

그 동안 아껴 모은 후원금과 일일찾집 수익  
금을 합쳐 전세금 3백만원을 인상하고 3월  
31일 부터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싼 가격에 재  
계약에 응해주신 집주인님께 감사드립니다.

## 4월

## \* 신입 아동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올해부터는 자모회와 자부회의 임원들도 가정방문시 같이 가서 자모회, 자부회 소개도 하고 사랑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기로 한 것이죠.

## 5월

## \* 어린이 날 기념 체육대회

북부지역의 둥근나라, 나눔 어린이집과 함께 어린이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를 국제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었습니다.

사랑방은 9가족이 참여해서 재미있는 돌리춤과 가족게임을 즐겼습니다.

끝나고 사랑방에서 푸짐한 공술식사도 하구요.

## \* 5월 5일 어린이날 나들이

날아라 새들이아 아니고 달려라 봉고차야. 대학로 소극장으로! 마법의 동물원을 감상하고, 성균관대 뒷산에서 휘날리는 꽃가루를 피해가며 맛있는 도시락 먹고 사랑방에 돌아와 보니 우와! 엄마들이 사랑방을 예쁘게 꾸미고 간식도 주시네.

게다가 자활 선생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어때요 즐거운 어린이날 잘 보냈죠.

## \* 봄 소풍

5월 23일 우이동 그린파크로 봄 소풍을 갔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었지만 잊지 못할 것은 가족 장기자랑과 지혜어머님은 규율부장 노릇을 하셨구요.

11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 6월

## \*올바른 택아지원선을 위한 요구대회 참가

지역탁아소연합회 주최로 6월 21일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 열린 요구대회에서 민간탁아소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듣고 각 지역 어머니들의 사례발표도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뒤 지원촉구를 위한 가두행진도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자모, 자원활동가, 교사가 참석했습니다.

## 7월

## \* 개원 7주년 잔치

7월 26일 오후 2시부터 사랑방 개원 7주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7주년을 기념하는 간단한 식순에 이어 고사가 있었고 음식나누기가 있었습니다. 7

살 난 사랑방이 의젓하게 걸을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의금 285300원은 사랑방 살림에 건요하게 보태었습니다.

## \* 교사 하계 수련회겸 여름방학

(7월 31일~8월6일)

교사들의 하계 수련회가 7월 31일~ 8월2일 동안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교사 3명 모두 참가했고, 어린이들은 7월31일~ 8월6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간단한 생활습관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제물도 있었습니다.

## 8월

## \* 지부회 아유회

자부회의 친목을 다지는 아유회가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우이동 산장에서 있었습니다. 밤세워 게임하고 노래부르고, 아빠들은 멍멍탕을 끓이시고... 비가 오는 여름밤을 멋지게 보냈습니다.

## 9월

\* 추석휴가(9월10일~9월13일)와 어머니 큰잔치 준비, 우리동네 노래자랑 준비로 분주히 보냈습니다.

## 10월

## \* 어머니 큰잔치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어머니들이 주최하는 제5회 어머니 큰잔치가 국민대학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사랑방 어머니들은 노래가사를 바꿔 부르기로, 아빠들은 여장을 하고 소양강 처녀 개사곡을 가지고 출연하셨습니다. 서울·경인 지역의 어머니들이 다 함께 어울린 자리도 좋았고요 몇몇 가족들의 3차까지 가는 거창한 뒷풀이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동네 노래자랑

삼양·정릉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우리동네 노래자랑이 10월 18일 미양국민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장터에서 부침개와 막걸리를 파셨고 아버님들은 장내 정리와 대동놀이, 뒷청소 일로 수고 하셨습니다.

장터 이익금 36만 2천 7백 9십원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노래자랑 준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소풍

10월 23일 토요일 샘터 파랑새 극장에서 '푸른 구슬'이라는 연극을 어머니들과 같이 관람하고 모처럼 외식도 했습니다. 문화주간으로 떠들썩한 대학로 구경을 하고 사랑방에서 지글지글 고기파티로 하루 일정을 끝냈습니다.

## — 김영희씨의

##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를 읽고

이 덕 순 (지연 엄마)

발그레한 얼굴을하고 땃방아를 찢는 닥종이 인형이 눈에 아른거린다. 언젠가 TV를 통해 본 인형 모습이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지게진 농부의 해맑은 웃음…….

내가 김영희씨를 안 것은 삼년전 조그만 책자에서 “닥종이 인형을 만드는 여자”라는 안내서를 대하고 나서부터이다. 그 뒤로 심심찮게 TV 프로에도 출연하던 김영희씨의 삶은 대략 이러했다.

이 책에도 그녀의 진솔한 표현은 나를 울게했다. 행복한 시골 교사가정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춘기 소녀처럼 남편과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하고 코스모스 핀 가을 저녁놀을 안고 데이트를 즐겼던 그녀에게 돌연 남편의 죽음이 다가온다.

무작정 그곳에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의 공간 속을 아이들과 함께 과감히 탈피한 그녀는 서울로 이사하여, 평소 아니 어릴적 장난삼아 했던 한지(닥종이)를 이용한 공예를 시작한다. 그녀는 그렇게 고생하는 사이에 닥종이를 만드는 예술가가 되어있었다.

전시회를 열던 어느날, 독일의 뮌헨에서 젊은 청년이 방문한다. 그것으로 그녀의 인생은 행로가 바뀐다.

청년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꼈다. 그녀와 독일남자와의 결혼절차가 또한번 가슴을 아프게했다. 10년이 넘는 연하의 남자와 마흔이 넘은 그녀의 결혼이 무효판결을 받았을 때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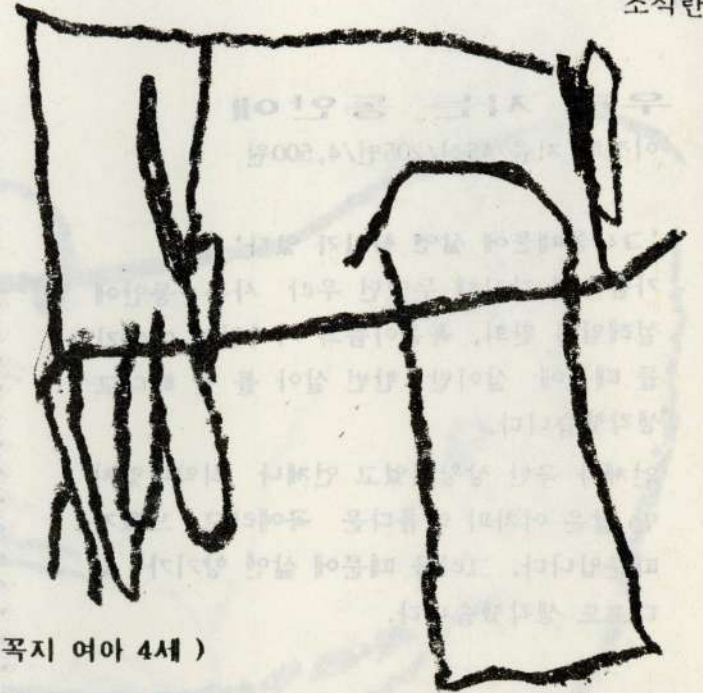
그러나 결국은 결혼하여 그녀는 이제 독일 뮌헨의 어느 시골에서 닥종이 인형을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며 살고있다.

이 책을 읽고 그녀의 삶의 뿌리는 아이들이란 걸 느꼈다. 유교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난 그녀의 결혼생활. 끈기와 애정이 축척해 낸 그녀의 가족들. 그중에 청년같은 연하의 남편이 무척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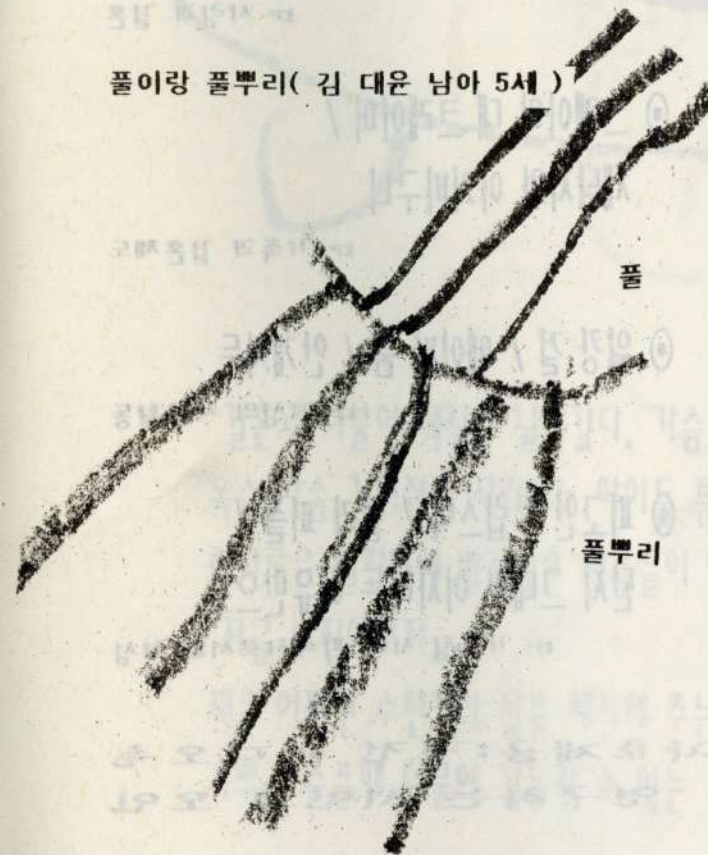
한 여자의 일생이 남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더구나 먼저 가버린 남편을 못잊어 현실(아이들과의 생활)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더 슬픈일이다.

김·영·희!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닥종이 인형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해 슬픈 고독을 참아냈다. 설령 그녀가 조국을 버리고 사랑하는 한 청년을 택한것이 우리눈에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녀를 닮은 여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지 모른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삶이란 참으로 다양하며 행복 또한 무궁무진함을 깨달았다. 나도 그녀처럼 현실속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싶다.

자동차 ( 김 쪽지 여아 4세 )



풀이랑 풀뿌리( 김 대운 남아 5세 )



## 신간 서적 안내

세상은 내게 모든것을  
가지라 한다.

메이브 하란 장편소설/한기찬 옮김/  
신국판 494/값 7,500원

인생을 자기 것으로 실려고 하는 한 女子가,  
공감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소설!

자기 일을 가진 여성,  
자기 성취를 꿈꾸는 여성,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여성,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 사이를 방황하는 90  
년대 직장여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

## 우리 사는 동안에

이정하 지음/A5신/205면/4,500원

‘그리움때문에 삶엔 향기가 있다’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던 우리 사는 동안에 설레임과 환희, 혹은아픔과 기다림의 이야기들 때문에 삶이란 한번 살아 볼 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극한 상황이었고 언제나 최악이었지만 삶은 어차피 아름다운 곡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 때문에 삶엔 향기가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 볼만한 비 디오

## ◎ 까미유 끌로델

▷ 남성의 성공

## ◎ 오피셜 스토리

▷ 여성의 정치 사회 의식

## ◎ 아빠는 출장중

▷ 남성 중심의 문화

## ◎ 인터 걸

▷ 자본주의 향락문화에 희생되는 여성

◎ 곡두 / 붉은 수수밭 / 은마는 오지 않는다  
사의 찬미 / 영자의 전성시대

▷ 여성의 삶과 역사

## ◎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 위험한 정사

▷ 사랑과 결혼

## ◎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

세남자와 아기바구니

▷ 가족과 결혼제도

## ◎ 워킹 걸 / 베이비 붐 / 안개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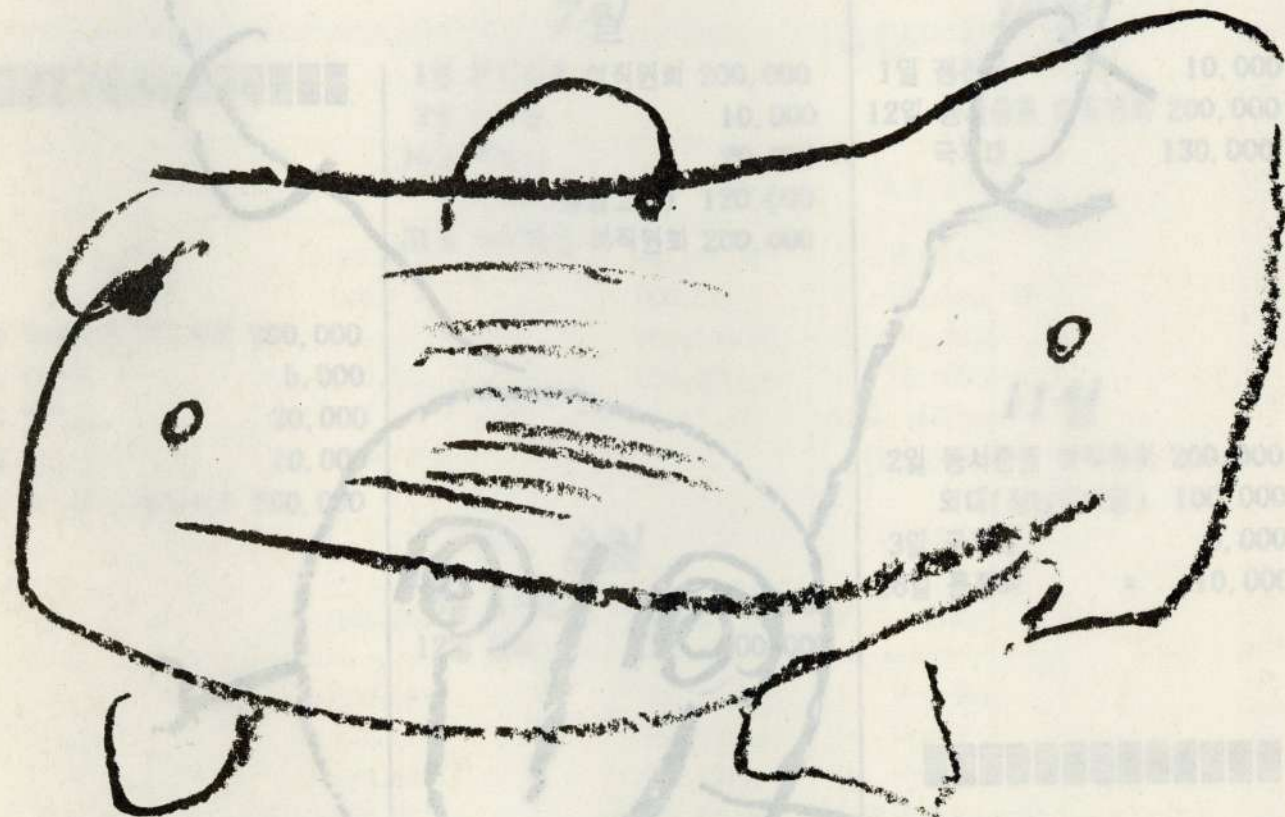
▷ 여성의 사회활동

## ◎ 피고인 / 립스틱 / 칼라 퍼플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가부장 사회 피해자로서의 여성

자료제공: 전전 비디오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피그러졌어요 (정 한별 남아 4세)

결혼과 더불어 책장은 날아갔다. 가슴이 공허할 틈없이 바쁘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 노스 가슴 거머쥐고 자라나는 아이들 틈바구니에 미어 세대차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허허로운 벌판위에 벌거벗은 마음들이 이제 없어져야 한다.

지금! 잡아보자.

책은 어쩌면 수천개의 삶을 제시해 주는 천의 마술사인지도 모른다.

기쁘고 슬플때 더불어 감동할 수 있는 느낌. 그 느낌을 다시 찾기를 바라며.



엄마가 태권도 해요 ( 김지은 여아 5세 )

## 7월



|               |         |
|---------------|---------|
| 1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2일 친구들        | 10,000  |
| 10일 박하나       | 20,000  |
| 국제대(냉장고값)     | 120,000 |
| 31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4월

|               |         |
|---------------|---------|
| 2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6일 정진선        | 5,000   |
| 22일 박하나       | 20,000  |
| 27일 이상훈       | 10,000  |
| 28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8월

|        |         |
|--------|---------|
| 6일 정진선 | 10,000  |
| 12일 한아 | 100,000 |

## 5월

|               |         |
|---------------|---------|
| 12일 정진선       | 5,000   |
| 19일 노명려       | 20,000  |
| 29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이상훈           | 10,000  |

## 6월

|              |         |
|--------------|---------|
| 4일 정진선       | 5,000   |
| 15일 미아 5동 교회 | 100,000 |

## 10월

|               |         |
|---------------|---------|
| 1일 정진선        | 10,000  |
| 12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국제대           | 130,000 |

## 11월

|              |         |
|--------------|---------|
| 2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외대(장난감비용)    | 100,000 |
| 3일 국제대       | 5,000   |
| 26일 흥정화      | 10,000  |



후원

감사합니다

## 9월

|              |         |
|--------------|---------|
| 1일 동서증권 여직원회 | 200,000 |
| 22일 국제대      | 5,000   |
| 25일 친구들      | 30,000  |
| 국제대          | 90,000  |

# 살림 살이

|     |       | 4월        | 5월               | 6월               |
|-----|-------|-----------|------------------|------------------|
| 수입  | 이월금   | - 87,786  | - 436,396        | - 1,054,259      |
|     | 입학금   | 15,000    | 5,000            | 10,000           |
|     | 보육료   | 668,000   | 780,000          | 986,000          |
|     | 후원금   | 435,000   | 235,000          | 105,000          |
|     | 기타 수입 | ×         | 1,757<br>(은행 이자) | 1,672<br>(은행 이자) |
| 입합계 |       | 1,030,214 | 585,361          | 48,413           |
| 지출  | 주식비   | 28,000    | 84,000           | ×                |
|     | 부식비   | 124,890   | 114,970          | 121,350          |
|     | 간식비   | 127,200   | 128,250          | 76,380           |
|     | 교육자료비 | 17,320    | 39,500           | 60,950           |
|     | 소모품비  | 10,290    | 13,160           | 11,840           |
|     | 광열비   | 23,800    | 23,800           | 8,800            |
|     | 비품시설비 | 166,500   | 4,150            | 60,910           |
|     | 판공비   | 2,200     | 4,500            | 17,800           |
|     | 위생비   | 3,500     | 5,410            | ×                |
|     | 공과금비  | 68,810    | 45,850           | 40,940           |
|     | 예비비   | 39,100    | 142,330          | 5,000            |
|     | 사무비   | ×         | 5,700            | ×                |
|     | 인건비   | 855,000   | 980,000          | 810,000          |
|     | 출판홍보비 | ×         | 48,000           | ×                |
| 총계  | 합계    | 1,466,610 | 1,639,620        | 1,213,970        |
| 잔액  | 잔액    | - 436,396 | - 1,054,259      | - 1,165,557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1,165,557 | - 981,527   | - 1,128,637 | - 1,407,377 | - 1,582,537 |
| ×           | ×           | ×           | ×           | 15,000      |
| 1,070,000   | 780,000     | 595,000     | 660,000     | 1,189,000   |
| 550,000     | 110,000     | 325,000     | 340,000     | 215,000     |
| 285,300     | ×           | ×           | ×           | 100,000     |
| (개원잔치축의금)   |             |             |             | 외대장난감비용     |
| 자부회 100,000 |             |             |             | 320         |
| 자모회 50,000  |             |             |             | (은행이자)      |
| (냉장고 값)     |             |             |             |             |
| 889,743     | - 91,527    | - 208,637   | - 407,377   | - 63,217    |
| 43,500      | 58,000      | ×           | 56,000      | 89,500      |
| 125,330     | 110,030     | 116,990     | 113,980     | 165,130     |
| 136,460     | 76,070      | 161,670     | 117,730     | 105,640     |
| 138,050     | 27,840      | 45,620      | 59,870      | 54,420      |
| 32,460      | ×           | 3,050       | 19,470      | 20,500      |
| 9,200       | ×           | 9,200       | 9,200       | 58,000      |
| 486,400     | 5,500       | 1,500       | 20,220      | 57,660      |
| 7,650       | 3,000       | 3,960       | 1,720       | 7,300       |
| 7,200       | ×           | 1,200       | 10,100      | 5,660       |
| 50,460      | 36,670      | 56,260      | 34,570      | 76,200      |
| 93,910      | 30,000      | 14,290      | 87,300      | 190,400     |
| 10,650      | ×           | ×           | ×           | ×           |
| 730,000     | 690,000     | 785,000     | 645,000     | 860,000     |
| ×           | ×           | ×           | ×           | ×           |
| 1,871,270   | 1,037,110   | 1,198,740   | 1,175,160   | 1,690,410   |
| - 981,527   | - 1,128,637 | - 1,407,377 | - 1,582,537 | - 1,753,627 |

# “나도 하고 싶어요”

그림 강창욱



“얘들아, 이 쓰레기 좀 버려 주겠니?  
난 다리가 아파 못 하겠구나.”

“넌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빨리 버리고 올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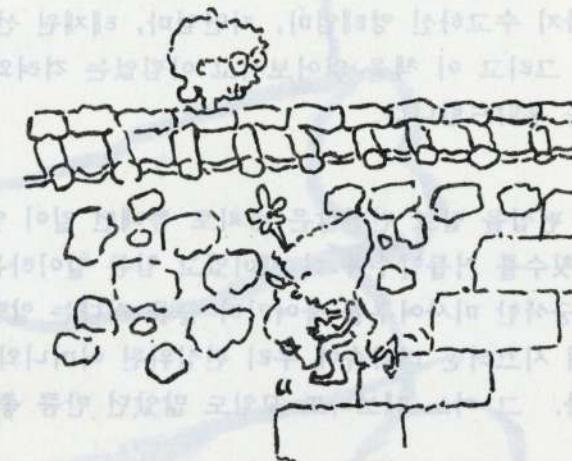
“할머니, 저도 쓰레기 주셔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떡하지?  
이젠 버릴 쓰레기가 없는데...”  
앙앙  
“싫어요! 나도 하고 싶어.”  
“이걸 어찌지... 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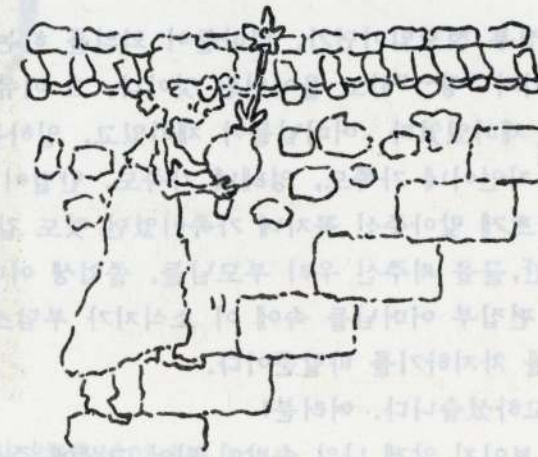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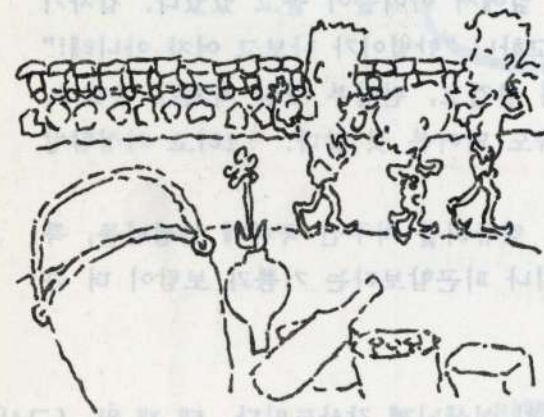
“그럼 넌 이걸 버려 줄래?”

쿵쿵쿵



“이젠 가서 놀아야지.”

“아이들은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어 한단 말야.”



## 편집후기

영겁결에 편집위원이 되서 말 그대로 제구실도 못한 채 얼렁뚱땅 하다보니 소식지가 나오게 되어 못내 아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청탁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피곤한 몸으로 밤 늦게까지 수고하신 영태엄마, 지언엄마, 태재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부족하고 서툰 부분은 부분에 대하여 따뜻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정 명 자 (한별이 엄마)

편집을 맡고 번번찮은 솜씨로 뽑내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횃수를 거듭할수록 더 재미있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

궁색한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글을 써대는 알뜰알뜰한 내 모습도 보이고, 지언이, 영태, 한별이의 시끄러운 대화속에 우리 편집위원 어머니와 선생님의 성대가 얼마나 피곤했을까를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임도 많았던 만큼 좋은 회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덕 순 (지언 엄마)

편집부 위원이 되어 보람있고 배운 것도 많았다. 또한 재미도 있었고...

그러나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천을 못해 다른 편집부 어머니께 죄송하다.

아울러 좋은 소식지가 되기 바란다.

김 숙 자 (영태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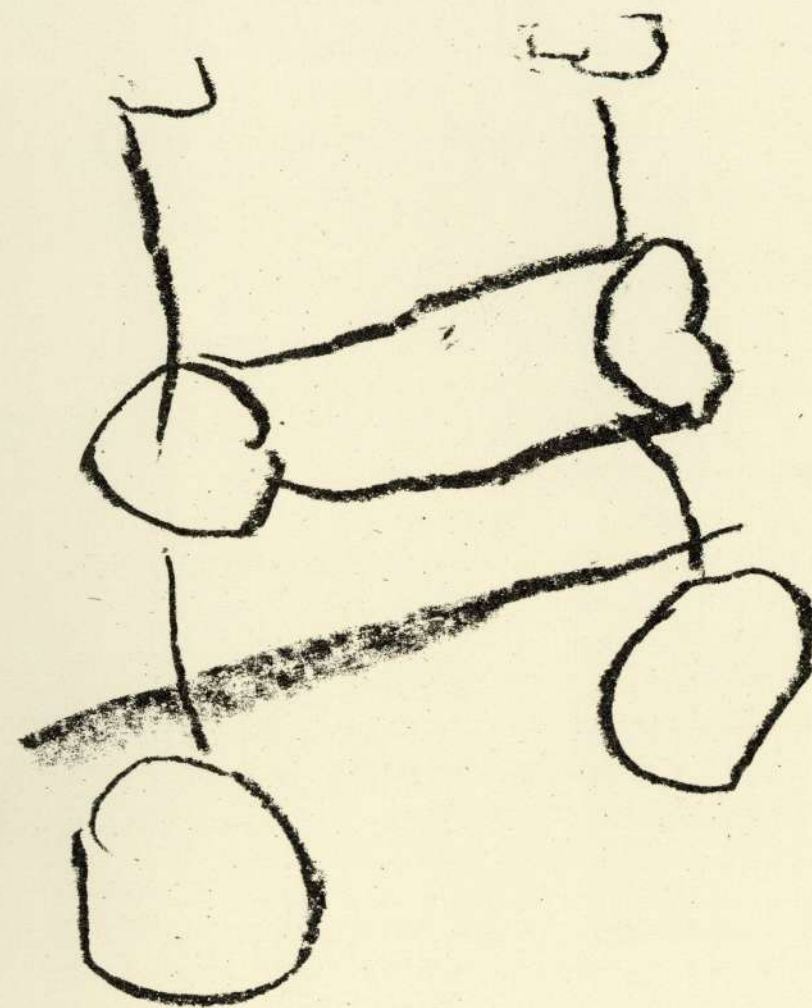
편집부 첫모임이던가. 엄마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옆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갑자기 지언이가 “왕~~”하고 울어버린 것이다. 그 이유가 뭐고하니, “한별이가 나보고 여자 아니래!”

참 재미있었다. 어머님들이 재미있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편집부 모임 자체가 좋았다. 나는 지언이네 가족도, 영태네 가족도, 한별이네 가족도 되어본 것 같다. 그리고 가정탐방을 기쁘게 맞아주신 꼭지네 가족이었던 것도 같다.

다만, 글을 써주신 우리 부모님들, 졸업생 어머님들, 컴퓨터를 쳐주신 국제대 선생님들, 특히나 편집부 어머님들 속에 이 소식지가 부담스러움이나 피곤함보다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랄뿐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보이지 않게 나의 손발이 되어 고생에 주신 조경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태 재 원 (교사)



비행기 (김 영태 남아 4세)

## 어린이 사랑방은요

기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별이 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교육하는 곳이에요. 미래 사회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그마한 사랑이 꼭 필요하답니다.

사랑스런 꿈나무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1,000원 이상의 일정액이나 장난감, 동화책, 아동복 등 무엇이든지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거예요. 혹은 일 몇회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008-01-0344-617

한일은행 : 012-01-147941

제일은행 : 252-10-011093

조흥은행 : 303-1-041236

상업은행 : 104-05-064166

농 협 : 027-01-246120

예 금 주 : 삼양 어린이 사랑방

발행처 : 어린이 사랑방

주 소 : 서울 도봉구 미아7동 852-613

발행일 : 1992.12.

전 화 : ☎ 969-4524